

중앙선리연구원 내년초 설립

선학원 재단 설립 70돌 기념, 근·현대불교사 연구

선학원이 설립 70주년(2004년)을 맞아 재단의 역사 및 근·현대 불교사료의 발굴·연구, '선' 등 불교 수행법 재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선리연구원을 내년 초 설립한다. 이와 함께 인재발사 차원에서 불교 소장학자를 지원하는 장학사업도 본격화한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정일)은 4월 25일 교무위원회 소속 위원, 전국 분원장 및 포교원장 등 27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리 회의실에서 교육발사 관련 증진분원장 스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재단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중앙선리연구원 설립과 불교 소장학자 지원 사업을 펼쳐기로 결의했다.

조계종과 20여년에 걸친 갈등관계를 청산한 선학원이 다소 지원이 뒤처진 교육발

사에 나서는 등 불교발전을 이룰 새 역할도 모색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선학원 뿌리찾기 운동'이란 슬로건 아래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을 원장으로 강남포교원에 중앙선리연구원이 설치된다. 선리연

불교 사상' 등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선리연구원은 또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오늘날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선'을 위시한 다양한 불교수행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재단설립의 역사성과 정체성 연구

내년 학술회의... 논문 '선학원 학술총서' 수록

소장학자 6명에 매년 6천만원 연구비 지급

구원에서는 선학원 관련 근·현대 불교사료 발굴은 물론 불교사 연구의 취약분야인 근·현대 불교사 재조명작업도 병행한다.

연구 성과는 <선학원사> <선학원연혁> <근·현대불교 인물지성사> <선학원 설립조사 문집> <정화운동 사상사> <근현대

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도 내년에 개최한다. 학술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논문은 <선학원 학술총서>로 발간된다.

선학원은 중장기 학술진흥 프로젝트인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2003년부터 시행될 불교 소장학자 지원

사업은 불교학과 인접학문 연구자들의 개별적인 연구활동을 모아 지원, 격려하고 상호간의 연구역량을 높여 불교학의 지평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원전지역 예술 등 6개 분야 박사과정 학생이나 시간강사 6명에게 매년 6천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한다.

소장학자 지원사업은 소장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장학지원의 열의시기인 박사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 때까지와 학위논문 제출 후 시간강사를 전전하는 시기에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신진 연구 인력 박사논문 지원사업(2명, 각 720만원), 원전 번역 지원사업(1명, 1500만원), 연구 논문 지원사업(1명, 720만원), 불교 예술 관련 지원사업(1명, 720만원), 외국인 학생 불교 관련 연구자 지원사업(1명, 600만원) 등이다.

한편 선학원은 재단 발기인 및 역대 이사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 도봉, 남천, 석두 스님 등 설립 조사 3인의 영정을 봉안하고, 해마다 11월 30일 창건기념 행사도 병행기로 했다. 또 재단법인 설립인가와 관련된 12월 5일을 분원장 및 도제들이 참여하는 선학원의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김원우 기자 wakim@buddhapia.com

원형보존 가장 큰 관심

'문화재 관리 10개년 계획(시안)' 불교계 시각

이번에 발표된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10개년 기본계획'(시안)은 그동안 단위사업별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약 70%에 이르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가 이번 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원형보존 부문'이다.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부문 계획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에

문화재가 아니라 불교의 성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기본계획의 확정·추진 과정에는 불교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보호 부문에서는 국토개발의 문화재영향 검토를 효율화하고 매장문화재 훼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지정·비지정 문화재와 매장문화재를 종합하는 전국 시군별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해 각종 건설공사 계획수립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문화재

불교계의견 반영 제도적 장치 필요

관광자원 활용사찰 지원누락 아쉬워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1800여 사찰 3만1천200여건의 불교문화재를 조사하고 이를 DB화해 사찰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 예방, 불법 밀반출 방지, 학술연구 등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동산문화재가 집중된 주요 사찰과 서원 등에는 유물의 안전한 보호와 전시공개를 위한 전시관·보호관 건립에 853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림사 유물전시관 건립 및 개·보수(2002), 전통단청 종합조사(2003~2006), 전국 부도조사(2004~2007), 전국 금석문 영상 DB구축, 전국 석탑(451건) 총람 발간(2005~2011), 전국 불교건축(362건) 종합조사, 석굴암 등 중요 문화재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 조사(2002~2011) 등이 추진된다. 탑이나 불상 등은 단순한

사범 단순 강화를 위해 문화재 사범에 대한 선의취득 적용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문화

재보호법을 2003년까지 개정한다. '체계적 관리 부문'에서는 중요 문화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기금'을 설립한다.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연구를 위해 10억을 들여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조사 및 종합 방제방안을 수립, 문화재 종균해 방제용 약제 개발연구를 실시한다.

'효율적 활용 부문'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와 문화재 주변 편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관광자원화를 위한 '효율적 활용 부문'에는 이미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찰과 불교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계종 승려노후복지 세미나

승려노후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대책' 수립이 가장 중요하고,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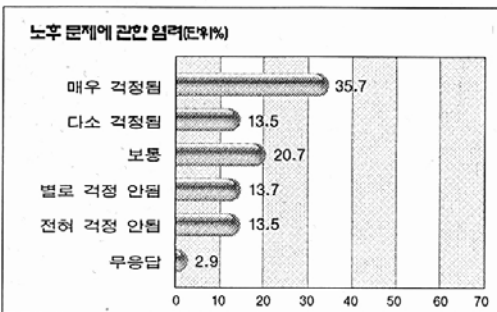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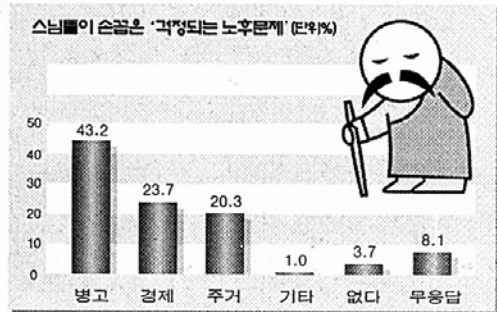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화법)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대)은 10일 오후 1시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조계종 승려노후복지 연구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 하는 성운 스님(인덕원 이사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종회에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종현 중점을 제·개정하고, 총무원에서는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 '보건의료' '소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는 김응철(중앙승가대), 김수영(국립보건원), 이혜숙(동국대) 교수 등도 '종단 차원의 종합적 승려 노후보전 의료 대책'인 '조계종 승려노후보전 의료사업 5개년 계획'과 '가칭'수발보험' 실시 등 병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조계종종회 사회분과위원회 간사 현각 스님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승가복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이념적 철학적 공감과 합의를 우선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구보고서 및 토론내용은 향후 종회 입안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세미나에서 발표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노후복지 연구보고서'는 중앙종회 사회분과위가 전국 2천여 사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응답한 482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



승려노후복지 종단이 나서야

해 발간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구호에만 머물던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종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승려노후복지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조계종의 의지표현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노후복지 연구 보고서'의 △주거 △보건의료 △소득 △수발보험 대책 등 4개 분야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본사의 복지요양시설' 주거선호 스님들의 노후 주거문제에 대해 스님 106명(22.0%)이 공할 내에서 수행과 치료 기능을 갖춘 노후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5명(32.2%)의 스님들은 종단이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하는 공동주거 시설을 원하고 있고, 이상적인 노후 시설

로 377명(78.2%)의 스님들이 분사급 공할의 복지요양시설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승려노후 주거시설은 △비구, 비구녀 시설 구분과 시설내 주거와 수행공간을 포함한 치료요양 공간 △모든 스님에게 기회 제공 △공동주거 형태의 운영과 종단의 경

관련 종헌종법 제·개정, 예산 확보 시급 의료사업 5년 계획·수발보험 실시해야

상비 지원, 복지금 조성 및 별도의 특별 회계 운영 △시설 위치는 신도의 자원봉사와 연계한 수도권 위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보건의료 5개년 사업' 계획 조계종 스님들의 절반 이상이 노후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08명(43.2%)의 스님들이 노후에 얻게 될 병고 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의료비 대부분을 스님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외병시 당면문제

로서 치료비 문제(30.3%), 간병인 부재(23.7%), 방사 부재(10.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스님의 소득보장과 주거 보장 등과 연계해 종합적, 장기적인 계획 하에 건강보호, 치료, 간병 등의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강구되어야 한다. 종단은 '노후승려 보건의료사업 5개년 계획'을 조성해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적인 여건 마련, 특히 각 교구별 예산 및 행정지원에 의한 승려건강증진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복지기금 조성 절실

스님들의 한달 월평균 지출액은 50만원대 17.3%, 30만원대 16.5%, 100만원대가 15.1%로 평균이 61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달 월수입은 100만원대 18.4%, 50만원대 14.6% 등으로 평균수입액은 67만원으로 조사됐다. 결국 평균 6만원이 남는 셈이다. 또한 전체의 59%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혀 노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교구 분·발사 중심으로 소속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책임지게 하는 '승가연금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승가복지기금' 조성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재정의 조달 방법으로 △관람료, 출판 문화사업 등 종단 내 수익사업 △분발사로부터 목적사업용 분담금 △특별 불사 기부금 △특별모금사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출가 수행자 본인의 도반 공동체정신을 회복하

고 임미회합의 실천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가연금제' 방안 모색

승려노후복지 부분별 종합의견을 정리하면, 먼저 보건·의료부문에 있어 종책으로 결정할 사항은 건강증진과 의료보장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서는 △승려의 의료보호 서비스 관리하기 위한 기관 설립의 문제 △의료보호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의 결정 △연간 소요되는 의료보호비용의 산출 및 각출방법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수발보험' 문제 등이 종책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노후 연금 부문에서는 '승가연금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승려의 노후 공동주거시설은 공할에 설립하고, 시설 운영비는 종단에서 승가복지기금을 조성해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어두운 곳에 연등의 불을



약사 제일 영험도량

봉사와 무료복지관이 있는

실상선원
천축사

선원장 성환

주 지 종일, 일광 총 무 광동훈

신도회장 김동호, 서정섭, 박공례

실상선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02) 745-8503

천축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041) 734-2680